

높이 내세워주신 농업과학자들

2017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첨단농업과학연구소답게 새로 일떠선 어느한 농장 연구소를 찾아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연구사들의 생활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즉석에서 연구사들의 살림집문제를 해결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연구사들이 생활하는 침실에도 들리시여 불편한 점은 없겠는지 세심히 마음쓰시였다.

출입문벽도 만져보시고 세면장에 들어가시여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잘 나오는가도 알아보시는 자애로운 어버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식사실도 기쁨속에 돌아보시고 운동실의 운동기재들도 살펴보시며 연구소가 볼수록 멋있다고, 참으로 훌륭하다고, 이제는 우리 연구사들이 마음놓고 연구사업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농업부문 과학자들에 대한 대우를 잘해주어야 한다고 이르신 그이께서는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최전방이며 농업전선에서도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농업부문 과학자들이라고, 농업부문 과학자들은 군대에 비유하면 돌격선의 맨 앞장에 서있는 소대장, 중대장들이나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절세위인의 이렇듯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속에 바로 우리 농업과학자들이 산다는 크나큰 긍지로 세차게 높뛰였다.